

요나 4:1 - 4:11

1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2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요나:

-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어 들이신 하나님이 못 마땅한 요나
- 새번역 성경에는 “매우 못 마땅하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이 부분에 사용된 단어는 악함, 재난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강한 단어
- “화를 내다” 라는 단어가 4 장에 4 번 (1 절, 4 절, 9 절 두번) 등장

2 절의 기도는 2 장에 나온 요나의 기도와 형식적 유사함: 1 장 17 절과 4 장 1 절, 2 장 1 절과 4 장 2 절 첫부분, 그리고 2 장 2 절에서 시작되는 기도와 4 장 2 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기도 등이 대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 출애굽기 34:6-7 절에서 인용

급격한 요나의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장면: 2 장 6-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셔서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보고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라고,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합니다..

4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5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 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요나와 하나님의 화가 성질이 다르다는데 주목하자:

-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함에 화를 내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화를 거두어 들이신다.
-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화를 품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를 기대하며 지켜보려고 그늘을 만들어줄 초막을 짓는다.

6 주 하나님이 박 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들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 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7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 넝쿨을 쏘아 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8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별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 박 넝쿨로, 요나가 만든 초막보다 더 좋은 그들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박넝쿨 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 단어는 전체 성경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물인지 불분명하다. 그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잎이 큰 식물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6 절 말미에 “기분에 무척 좋았다” 라는 부분은 1 절에 “매우 못 마땅하여 화가 났다” 라는 부분과 아주 대조가 된다.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는 매우 화가 난 요나의 모습과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박넝쿨에는 무척 좋아하는 요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다.

요나서에 자주 등장하는 대목: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 6-8 절에서는 박넝쿨, 벌레, 동풍, 햇별을 마련하신다. 큰 물고기를 마련하셨던 하나님
- 마련하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

9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 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1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식물을 네가 것처럼 아까워하는데, 11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9 절의 질문: 박넝쿨이 죽는데에는 화를 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데에는 관심이 없는 요나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11 절의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이라는 표현: 도덕적/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표현하는 관용구.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는데,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저자는 이 대답을 독자들 스스로에게 남기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